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71호 【루계 제 24584호】 주제 103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룡군중장 마원춘 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룡군중장 김정관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은점과학지구에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위성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인민군인들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 사이에 수십동에 천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위성원,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한 구획내 모든 건물

들의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이 완공되었으며 장마철전에 외벽타일붙이기를 끝내고 내부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시며 공사장전역

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들의 외부를 여러가지 색타일로 구색이 맞게 처리하며 현판부들에 원형창문을 내주면 건물들의 모양이 멋있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택지구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사에 부엌발과 온실도 잘 꾸려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이 다그쳐지는데 맞게 지피식물과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구획도로와 걸음길조성을

계획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장마철전으로 주변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호동과 9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내부구조가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매 살림방들의 벽면과 바닥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가구들은 어떻게 비치하였는가를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라고, 그러자면 건축물마다에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주제적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자살림집 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건축물을 백점, 단점짜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필필 휘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곳곳에 세워진 호수성이 높은 직관물들, 힘있는 방송선전으로 들쭉이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는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진리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당창건 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별공사와계획을 일제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특군중장 마원춘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특군중장 김정관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9월 룡라도에 자리잡고있는 5월1일경기장을 돌아보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개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긴 건설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개건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총공사량의 70%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차게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5월1일경기장은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하자면 주제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개건에서 힘을 넣어야 할 대상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해주시면서 특히 관람석, 경기장바닥, 각종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야 5월1일경기장을 주제적인 건축술이 집대성된 체육시설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장에서 나서는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개건을 다그치 말은 대상들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에서 설계 뿐 아니라 시공도 주제가 명백히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람석의 자와 관람층, 계단부분의 색깔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경기장의 면모가 이제로워질것이라고 하시었다.

5월1일경기장을 웅장화하려고 산뜻하면서 깨끗하게 개건하자면 건설자들이 모든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랑심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1일 경기장개건을 위해 당장건기념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 소장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차이까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 소장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대표단 단장인 유리 골라진 부소장이 1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명도자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무술이 울창한 섬을 바라보시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방어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음에 대한 김정은명도자의 유혹을 철저히 판철하였다고 치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전세위인들의 현지지도포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으며 방어대의 전투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군인회관, 병사원, 무난담담새은실, 버섯재배장, 화초온실을 비롯한 후방경리시설들과 직속중대들을 돌아보시였다.

이곳 부대는 조선로동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단위,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진형단위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중국의 인민망, 동북망,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엔데웨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결림신문》, 로씨야의 신문《프루트》, 《즈베즈다》TV방송, 마이알방송, 인터넷통신인 로스발트, 루스카야 슬루츠히바 노보소프예이, 가제마, 루, 펜따, 루, 인터넷TV《미르 24》, 이

란신문《이란 뉴스》, 타이신문《앙코르 포스트》, 영국의 BBC방송, 신문들인《인디펜던트》, 《가디언》,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이란신문《이란 뉴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내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발신문《아르판》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 네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1호 주제 103(2014)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를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최경돈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명도자

국제사회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성명도자께서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함으로써 당시사상리론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로씨야신문《야프리오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명도자께서는 장구한 기간

국제사회가 격찬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당건설위업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은 조선로동당을 투철한 사상적전일체로,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으로 전변시키신것이다.

김일성명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이 강화발전되도록 하시였다.

또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을 시종일관 당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시였다.

백년사회의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백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평의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들을 위하여 부부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전투력을 지닌 불멸의 당으로 다지고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술한 명도자, 회세의 정치원로이시였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우민족독립운동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기치를 확고히 고수해나가는 백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근 반세기동안 조선로동당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 혁명과 건

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당건설업적에 대하여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하기에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공적을 감회하고 기억하며 하는 인류사에 특기할 날이다.

만나 미트 타르토출판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전력적인 명도로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강력한 당으로 위용발전시켰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주석회고 로모니아위원회가 2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모니아 사회주의선량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루가, 부위원장으로는 로모니아군로 자혁명 위원장 다니엘 데두이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 민주공화국위원회 결성식이 12일 키냐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은 민주공화국 정당, 단체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민주공화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공화국-조선친선 및 련대성

협회 위원장 오메데 가스통 음보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을 승연한 감정으로 맞이하게 된다.

김일성주석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으로써 수많은 아프리카나아 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아프리카나아 인민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 류로부터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칭송받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

으로 오메데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10일 리비아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리비아조선 친선협회 위원장인 쉐블라쿠제친선구락부 총국장 아흐마드 무함마드 알콜레비가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 토론회, 강연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경사로운 6월의 명절에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진다

6월의 푸르른 하늘 가에 우리 당마크가 찬연히 빛난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조선로동당마크를 우러러 찬탄 의 불타는 심장들이 하나가 되어 세차게 고동친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 한 붉은 당기 가 더불어 언제나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어 이 땅 어디서나 보이는 불멸의 기념탑으로 다함없는 청송과 홍도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쳐 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찬연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막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이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실려 당창건기념탑을 찾았다.

기쁨과 피로가 때때로 행복 한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세상에도 돌도 없는 가장 위대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달력에는 이날이 보통날과 다름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치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어디서나 노래춤바다가 펼쳐지고 수천만의 농동자들이 숨입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당기를 우러르고 있다.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고 당들마다 창건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당의 끝없는 영광과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의 지에는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합법적 발전에 따라서서 못하는 당들이 어떻게 정취대에서 사라져 버리는가를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양양되고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결과로 공산당, 로

동당들을 비롯한 혁명정당들이 역사무대에 편이 등장하였을 때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솟은 열마와 격과 희망으로 부풀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던가.

하지만 20세기 말엽 동유럽의 붕괴와 함께 궁지났던 정권당들 역시 자기 존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류를 격동시키던 모든 창건일들과 기념일

얼마나 운명적인 사변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창건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신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속에서 오시었고 우리 인민모두의 존엄과 행복, 영광넘은 미래를 책임지신 위대한 은인으로 되시었다. 그이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달력에는 이날이 보통날과 다름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치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어디서나 노래춤바다가 펼쳐지고 수천만의 농동자들이 숨입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당기를 우러르고 있다.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고 당들마다 창건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당의 끝없는 영광과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의 지에는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합법적 발전에 따라서서 못하는 당들이 어떻게 정취대에서 사라져 버리는가를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양양되고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결과로 공산당, 로

동당들을 비롯한 혁명정당들이 역사무대에 편이 등장하였을 때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솟은 열마와 격과 희망으로 부풀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던가.

하지만 20세기 말엽 동유럽의 붕괴와 함께 궁지났던 정권당들 역시 자기 존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류를 격동시키던 모든 창건일들과 기념일

얼마나 운명적인 사변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창건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신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속에서 오시었고 우리 인민모두의 존엄과 행복, 영광넘은 미래를 책임지신 위대한 은인으로 되시었다. 그이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달력에는 이날이 보통날과 다름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치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어디서나 노래춤바다가 펼쳐지고 수천만의 농동자들이 숨입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당기를 우러르고 있다.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고 당들마다 창건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당의 끝없는 영광과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의 지에는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합법적 발전에 따라서서 못하는 당들이 어떻게 정취대에서 사라져 버리는가를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양양되고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결과로 공산당, 로

동당들을 비롯한 혁명정당들이 역사무대에 편이 등장하였을 때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솟은 열마와 격과 희망으로 부풀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던가.

하지만 20세기 말엽 동유럽의 붕괴와 함께 궁지났던 정권당들 역시 자기 존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류를 격동시키던 모든 창건일들과 기념일

속 평 양 방 직 공 장 에서 김 정 숙 평 양 방 직 공 장 에서 고 마 워 라 어 머 니 당 의 사 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찬연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막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이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실려 당창건기념탑을 찾았다.

기쁨과 피로가 때때로 행복 한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세상에도 돌도 없는 가장 위대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달력에는 이날이 보통날과 다름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치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어디서나 노래춤바다가 펼쳐지고 수천만의 농동자들이 숨입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당기를 우러르고 있다.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고 당들마다 창건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당의 끝없는 영광과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의 지에는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합법적 발전에 따라서서 못하는 당들이 어떻게 정취대에서 사라져 버리는가를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양양되고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결과로 공산당, 로

동당들을 비롯한 혁명정당들이 역사무대에 편이 등장하였을 때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솟은 열마와 격과 희망으로 부풀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던가.

하지만 20세기 말엽 동유럽의 붕괴와 함께 궁지났던 정권당들 역시 자기 존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류를 격동시키던 모든 창건일들과 기념일

얼마나 운명적인 사변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창건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신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속에서 오시었고 우리 인민모두의 존엄과 행복, 영광넘은 미래를 책임지신 위대한 은인으로 되시었다. 그이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달력에는 이날이 보통날과 다름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치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어디서나 노래춤바다가 펼쳐지고 수천만의 농동자들이 숨입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당기를 우러르고 있다.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고 당들마다 창건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당의 끝없는 영광과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의 지에는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합법적 발전에 따라서서 못하는 당들이 어떻게 정취대에서 사라져 버리는가를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양양되고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결과로 공산당, 로

동당들을 비롯한 혁명정당들이 역사무대에 편이 등장하였을 때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솟은 열마와 격과 희망으로 부풀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던가.

하지만 20세기 말엽 동유럽의 붕괴와 함께 궁지났던 정권당들 역시 자기 존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류를 격동시키던 모든 창건일들과 기념일

얼마나 운명적인 사변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창건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신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속에서 오시었고 우리 인민모두의 존엄과 행복, 영광넘은 미래를 책임지신 위대한 은인으로 되시었다. 그이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달력에는 이날이 보통날과 다름없이 표기되어 있지만 마치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10일을 맞이할 때처럼 온 나라 어디서나 노래춤바다가 펼쳐지고 수천만의 농동자들이 숨입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당기를 우러르고 있다.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고 당들마다 창건일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당의 끝없는 영광과 승리를 기원한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의 지에는 관계없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합법적 발전에 따라서서 못하는 당들이 어떻게 정취대에서 사라져 버리는가를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양양되고 그 크고 작은 승리의 결과로 공산당, 로

동당들을 비롯한 혁명정당들이 역사무대에 편이 등장하였을 때 수억만 진보적인류의 가슴에 솟은 열마와 격과 희망으로 부풀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던가.

하지만 20세기 말엽 동유럽의 붕괴와 함께 궁지났던 정권당들 역시 자기 존재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류를 격동시키던 모든 창건일들과 기념일



우리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 굽이친다. 본사기자 김 중 훈 작음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 경축의 환희되어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환외를 있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

불멸의 당건설업적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아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의 그 어디나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분위기가 차일었다.
6월 19일 마침내 그의 총정이 담긴 불멸의 꽃은 백두산 밀영고향집 트랙에 활짝 피어나 찾아오는 당사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었다.
꽃잎은 이날 우리의 만난 광강도당위원회 부부장 김명숙동무는 이렇게 격정을 더했다.
《백두산기슭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대한 거점으로 전민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성있게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혁명적열의는 여기 정일봉기에서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이름이 아행 더 배인 경축열의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아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의 그 어디나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분위기가 차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탄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탄광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며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의 그 음성이 오늘날에 거기에 정경히 들려오는듯 탄광초급당서서 리동철동무는 절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열거하시였다.
《우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만이 아닌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모두가 이런 경의를 다지며 다채로운 행사를 경축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탄광에서는 탄광기술에 승진된 경축공원을 진행하여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축공원에서 석화와 노래, 대회사, 녀성축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열렸다.
탄광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평 양 시 에 서 - 본사기자 리명남 적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린 미려한경축의 일군들과 장군님들의 마음도 그리고 애정장발전소 건설자들의 마음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 일념뿐이다.
이른아이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사리원시민들이 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은 처녀방직공의 가슴에도, 인민군대원호사업소를 맡아 아버지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나 받아안는 영물을 지닌 소년단원의 얼굴에도 한없는 그리움이 어렸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린 미려한경축의 일군들과 장군님들의 마음도 그리고 애정장발전소 건설자들의 마음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 일념뿐이다.

특파기자 주창선

2.8 직동청년탄광에서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뜻깊은 6월 19일을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탄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탄광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며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의 그 음성이 오늘날에 거기에 정경히 들려오는듯 탄광초급당서서 리동철동무는 절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열거하시였다.
《우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만이 아닌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모두가 이런 경의를 다지며 다채로운 행사를 경축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탄광에서는 탄광기술에 승진된 경축공원을 진행하여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축공원에서 석화와 노래, 대회사, 녀성축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열렸다.
탄광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특파기자 리혁철

함남의 불길놀이 당을 따라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아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날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정적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반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점인 주제 100(2011)년 10월 몹소 함경남도에 찾아오시어 함남의 불길놀이를 지켜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로써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체육경기를 진행하면서 뜻깊은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함흥대극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합

경축열의로 끓어번진 배구경기

황해남도물결건설에 동원된 함경청진시 송평구역대대의 선수들이 이겼다.
파연 오늘의 배구경기에서 어느 대대가 이겼건가.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무산군대의 대대장 리명주, 정지희동원들이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여 결승전에서 무산군대에게 승리하였다. 청진시 송평구역대대팀도 막기와 강한 체력으로 자기의 강한 실력을 보여 주었다. 승백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운원들의도 불만 하였다. 득점할 때마다 와- 하는 함성과 요란한 박수소리, 선수들을 고무하는 목소리들로 하여 배구장이 떠나갈듯 하였다.
특파기자 리승철

철 도 성 에 서 - 본사기자 한광명 적음

극악한 매국노 문창극놈에 대한 괴뢰국무총리 임명놀음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해 《사과판을 필요가 없다.》고 망발하고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두둔해왔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애로》를 자립성이 부족하며 남에게 신세를 지려는 유전자들을 가지고있다.》고 악담하였다.
그러나 하던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미국의 부친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극구 찬양하였을뿐이 아니라 《전쟁불사론》과 남조선《핵무장론》, 《북체제붕괴론》을 떠들어대며 강요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참을수 없이 중상모독하였다.
문창극놈이 내뱉은 독설들은 턱대 그 어느 역적배도 입밖에서 내지 못한 반민족적대담의 극치이다.
일제의 특대형반민족범죄를 감싸고 민족을 모독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는 문창극놈과 같은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유리 골라진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최고 검찰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 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

제16차 아시아청년특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제16차 아시아청년특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9일 귀국하였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대륙에서 진행된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34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성미선수는 완강한 투지와 높은 인내력을 발휘하여 여자 1500m달리기경기에서 제1위를 쟁취하였다.
여자 3000m장애물달리기 경기에서 주옥명선수가 2위를, 여자 5000m달리기경기과 여자 3000m장애물달리기경기에서 김지향, 장은화선수들이 각각 3위를 하였다.
평양에서 열린 결승총회에서는, 판계부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인양하면서 경기성적을 축하해주었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에 항의

남조선의 종교계, 녀성계, 로동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13일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을 결성하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이 고등학교지연대상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이것은 조선학교를 일본의 령

통일운동의 강화를 주장

조국통일임민족련합 남측본부와 민주로총, 《통일광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12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적극 펴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족분열 55년만에 우리 민족끼리 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조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의 공동성명을 인정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성을 분명히 밝혀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그 열기를 불려나가기 위해 로동자들과 통일운동에 구심하여 투쟁을 펴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